

- _____/J. Lindenmeyer(hrsg), 『Vorlesungen über Christliche Glaubenslehre』, Zwiter Theil,(Gütersloh: Druck und Verlag von Bertelsmann, 1887).
- _____(Hg.) J. Lindenmeyer, 『Vorlesungen des Briefes Pauli an die Römer』, Erste und Zwei Hälfte, Gütersloch, 1884.
- Kyung Sik Pae, 『Eschatologie bei J. T. Beck』, Dissertation of University in Tübingen, 1988.
- J. Moltmann, 『Trinität und Reich Gottes』, Zur Gotteslehre,(München: Chr. Kaiser, 1980).
- _____, 『Das Kommen Gottes, Christliche Eschatokogie』(München: Chr. Kaiser, 1995).
- J. A. Bengel, 『Gnomon』, Auslegung des Neuen Testamented in fortlaufenden Anmerkungen, 4. Auflage, Deutsch von C. F. Werner(Leipzig: Verlag M. Heinsius Nachfolger, 1932).
- J. T. Beck, 『Vorlesungen des Briefes Pauli an die Römer』, Erste und Zwei Hälfte,(Hg.) J. Lindenmeyer, Gütersloch, 1884.
- G. Scholem, 『Die jüdische Mystik in ihrem Hauptstömungen』, Frankfurt 1967.
- R. Bultmann, History and Eschatology(Edinburgh: The University Press, 1957).
- P. Althaus, Die Letzten Dinge(Erlangen: Gütersloh, 1964).

21세기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칼빈의 참된 교회의 표지와 적용*

유태주 (한일장신대학교 명예교수)

I. 머리말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제4권 2장에서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에는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거짓된 교회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양자를 비교하고 있다.¹⁾ 비교의 목적은 사도들의 교훈에 바로 서은 교회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진 로마카톨릭교회(이후 로마교회)를 비교함으로써 로마교회가 거짓교회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교회로부터 거짓된 것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고 튼튼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칼빈의 참교회의 표지에 대한 메시지가 21세기를 바라보는 포스트 모던시대에 한국교회와 신학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칼빈은 로마

* 이 글은 「신학과 사회」, 제9집(1995)에 실었던 논문인 “칼빈의 참 교회와 거짓교회 비교론을과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를 참고하여,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2, ed., J. T. McNeill, F. L. Battles(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IV, ii, 1.(이후로는 *Institutes* 로 표기)

교회를 거짓교회로 보고 투쟁하였다면,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거짓교회의 사상은 로마교회와는 물론이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에까지 파고드는 교회주변의 각종 이단들도 참된 교회가 물리쳐야 할 거짓교회의 한 지류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참교회의 지표를 중심한 거짓교회와 참된 교회의 분별논리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참된 교회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거짓교회 사상과 그 추종세력들을 추방하고 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는 칼빈이 말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살펴보고, 다음은 제II장에서 포스트모던시대상황에서 참된 교회의 표지의 의미와 적용을 알아보고자한다.

이 글에서 거짓교회(false Church)라 함은 역사적으로 보이는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왔으나, 성경적 정통교리에 거짓된 교리를 더하여 진리를 왜곡시켜 무효화시킴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거짓교회로 규정한 교회를 가리킨다. 이단(heresy)은 처음부터 기독교중요교리(성서론, 삼위일체론, 기독교론, 구원론 등)가 명백하게 정통교회와 다르며, 기독교기본신조들(사도신조, 니케아신조, 칼케돈신조 등)을 공유할 수 없는 유사교회집단들을 가리킨다.

I. 칼빈이 말한 참된 교회의 표지

칼빈은 참된 교회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는데 있다고 하였다.²⁾

2) "Wherever we see the Word of God purely preached and heard, and the sacraments administered according to Christ's instruction, there, it is not to be doubted, a church of God exists(cf. Eph. 2:20). *Institutes*, IV, i. 9.

1.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1) 거짓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거부한다.

거짓교회는 그 높은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거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는, 고대 유대인이나 로마 카톨릭이 흡사하다고 지적한다. "로마카톨릭교도와 같이, 유대인들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굉장히 자랑했으며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로마교회들은 교회 대신에 외양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은 교회와는 거리가 멀다."³⁾ 그리고 바울의 지적과 같이(롬11장),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복음의 교훈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함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교회의 외형에 필요한 것은 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진리의 적으로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한다.⁴⁾

2)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위에서 있으며, 말씀의 지표가 없는 곳은 교회라 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위에서 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인 치신 영원한 표적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요18:37)."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요10:14)."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10:27)."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요10:4-5)."고 말씀하셨다.⁵⁾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표시하는 지표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교회가

3) *Institutes*, IV, ii, 3.

4) *Ibid*.

5) *Ibid*.

있으며, 말씀의 지표가 없는 곳에는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3)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듣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탄의 음모집단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 하였음이다(요 8:47).”⁶⁾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듣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성경말씀에 칼빈은 찾는다.

4) 칼빈이 참된 교회의 지표로서 성경말씀을 제일 순위로 내세우게 된 근거

칼빈이 참된 교회의 지표로서 성경말씀을 제일 순위로 내세우게 된 근거는 그의 신실한 성경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려는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성경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구속주로까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⁷⁾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성경이 교회의 지표가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신탁의 말씀을 내리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서만 그의 진리가 영원불변토록 기억되도록 성별하시기를 원하셨다(참조, 요5:39). 그러므로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친히 듣는 것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⁸⁾

6) Ibid.

7) *Institutes*, I, vi, 1.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님께서 증거 하시며, 성경자체와 인간의 이성도 그 신빙성을 증명한다. 성경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다.⁹⁾ 그런데도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지껄여대도, 그들을 반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고민한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성령님이 경건한 자들의 신앙을 굳세게 하기 위한 ”인(seal)”이요 “보증(guarantee)”이라는 사실(고후1:22)을 망각하는 것과 같다¹⁰⁾ 고 칼빈을 경고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체의 보증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빙성은 인간의 이성 의해서도 충분히 증명된다고 칼빈은 진술한다.¹¹⁾

성경이 참교회의 지표가 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성경이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초월한다고 말한다. “그 글들을(유명한 웅변가나 철학자들의 글) 그만 읽고, 성경 읽는데 몰두해 보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당신은 깊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것이 골수까지 스며들어 그 깊은 감동과 비교할 때, 웅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미덕들을 훨씬 능가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¹²⁾

성경은 이적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기에 참교회의 표지가 된다. 칼빈은 성경의 모든 이적들을 신뢰하면서 성경말씀의 교훈의 확증으로 삼으며¹³⁾ 예언의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확인한다.¹⁴⁾

8) Ibid.

9) *Institutes*, I, vii, 4.

10) Ibid.

11) *Institutes*, vii, 5. ; 성경의 자중에 관해서 참고할만한 논문은, Harvie M. Conn, *Inerrancy and Hermeneutic*(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0), pp.47-46.

12) *Institutes*, I, viii, 1.

13) *Institutes*, viii, 5.

끝으로 성경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진실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교회역사 속에서 교회의 변함없는 승인과 성경교리를 위해서 순교자들이 담대하게 순교한 사실로 증거 하기 때문에 성경말씀이 참된 교회의 지표가 된다.¹⁵⁾

참교회의 지표가 되는 성경은 세계의 다양한 민족들, 특히 경건한 자들이 거룩한 일치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왔음은 하나님의 의지임을 말해준다.¹⁶⁾ 그리고 성경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담보를 치루고 우리에게 전달된 성경말씀의 진리를 확고 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칼빈은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로서 하나님의 성경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에 교회가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참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고 있는 데 있다고 보았다.

2. 성례전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고 있는가?

칼빈은 참된 교회의 영원한 지표로 말씀과 함께 성례전 집행을 들고 있다. “모든 신자들이 동의해야 하는 신조들을 파괴하지 않는 과오, 또한 성례전에 대한 주님의 합법적인 제정을 폐지하거나 전복시키지 않는 과오는 용서해야 된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요새에 거짓이 침입해서 필수적인 교리의 요점과 성례의 효험이 파괴될 때에, 틀림없이 교회는 죽게 된다. 목을 찢리거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람이 죽는 것과 같다.”¹⁸⁾ 성례전에 거짓이 들어와서 그 효험을 파괴시킬 정도가 되면 교회는 소멸되게 된다고 볼 정도로, 칼빈은 성례전을 말씀과 함께 참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본 것이다.

14) *Institutes*, I, viii, 7.

15) *Institutes*, I, viii, 12-13.

16) *Ibid*.

17) *Institutes*, I, viii, 13.

18) *Institutes*, IV, ii, 1.

그런데 로마교회의 교황제도 하에서는 주님의 성만찬의 자리를 가장 더러운 모독행위로 채웠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여러 모양의 참을 수 없는 미신으로 더럽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치명적인 비행에 참여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굳게 설 수 있다.¹⁹⁾

왜 이처럼 칼빈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교회의 영원한 지표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인가? 칼빈의 성례론 이해를 통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칼빈은 성례전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진술한다고 말한다. 성령님은 성례전을 통하여 신비스러운 그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준다. 성례전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²⁰⁾

그런데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이다.

1) 세례

물 자체가 “깨끗하게 하고, 중생시키며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벧전 3:21),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십자가 사건)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었는데,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성화시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닿는다. 이때에 세례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닿았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다.²¹⁾

칼빈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 경험되고, 믿는 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을 확증하고 표시한다. 칼빈은 롬6:3-4(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

19) *Institutes*, IV, ii, 2.

20) *Institutes*, IV, xiv, 16.

21) *Institutes*, IV, ii, 2.

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함이니라), 롬6:5(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를 인용한다.²²⁾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접붙여지는 것을 확증하고 표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축복을 나누어가짐을 확증하고 표시한다.”²³⁾ 따라서 세례란 교회의 사권에 들어간 것을 표시하는 인치심의 표지이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된다.²⁴⁾

2) 성만찬

세례가 죄의 용서와 중생, 회개와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 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증하고 표시한다면,²⁵⁾ 성만찬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평생토록 양육하는 영적 음식이다.²⁶⁾ 칼빈은 성만찬을 “영적인 잔치”라고 하며 이 잔치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떡(요6:51)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예수그리스도시라고 한다.”²⁷⁾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음식이다. 성부께서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께로 초대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교류함으로 힘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²⁸⁾

성만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회적으로 우리의 구속과 구원을 위하여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떡과 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²⁹⁾ 칼빈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22) *Institutes*, IV, xv, 2.

23) *Institutes*, IV, xv, 6.

24) *Institutes*, IV, xv, 1.

25) *Institutes*, IV, xv.

26) *Institutes*, IV, xvii, 1.

27) *Ibid.*

28) *Ibid.*

29) *Ibid.*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26:26-28).”는 말씀을 인용한다.³⁰⁾ 칼빈은 “유일회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주셨으며 그의 몸이 우리를 위한 떡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생 재물임을 분명히 확인한다.³¹⁾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하심으로 그를 대신할 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성부께서는 그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 직을 수행케 하셨다(히5:6, 10;7:17;9:11;10:21; 시11:4; 창14:18).”³²⁾ 이렇게 칼빈은 성만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한다.

그런데 로마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성례인 세례와 성만찬 중에서 특히 성만찬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말았다.

칼빈은 로마교회가 성만찬을 이른바 미사라고 개명하였는데, 성찬의 내용까지 변질 시켰다고 지적한다. 즉 미사가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한 희생제사라고 하는 믿음은 사탄의 소리이며, 미사라는 하나의 행위로서 이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사제들이나 이 제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공로로 얻는다든지 혹은 이 미사는 화해의 희생으로서 이 희생에 의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일으킨다고 하는 생각은 적그리스도(Antichrist)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미사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유회책으로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만족 행위라고 말하는 저들 로마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망각하는 것이요, 그의 죽음을 회상하게 하는 성만찬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칼

30) *Institutes*, IV, xvii, 3.

31) *Institutes*, IV, xvii, 5.

32) *Institutes*, IV, xvii, 2.

빈은 질책한다.³³⁾

그러면 16세기에 참 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별하기 위한, 칼빈의 참된 교회의 지표들인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이, 오늘 21세기 시대상황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II. 21세기 시대상황에서 참된 교회표지의 의미와 적용

1. 개혁자들의 성경관인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교리를 지키는 교회인가?

칼빈이 말한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올바른 성경관의 문제이다. 당연히 사도들의 성경관이요 개혁자들의 성경관인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를 전제한 말이다. 그러면 개혁자들이 추구한 “오직 말씀”의 주요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가치가 혼동되고 있는 21세기 포스트모던시대상황에서 “오직 말씀”의 표지로 현실교회에 적용하여 볼 때, 참된 교회와 거짓교회 내지는 이단의 정체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1) 개혁자들의 성경관인 “오직 성경만으로”의 의미는?

첫째, “오직 성경만으로”는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를 말해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길과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시한다. 칼빈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근거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inspiration)으로 된 것임(딤후3:15)과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구원의 진리(doctrine)가 있다(요 5:39)는 데서 찾는다.³⁴⁾

33) *Institutes*, IV, xvii, 1.

둘째, “오직 성경만으로”는 성경의 통일성과 명료성을 말해준다.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성경이 저자이신 성령님 한분의 일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경 기록자들의 언어와 문체 등의 외형적 다양성 속에서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일관된 진리의 말씀과 교훈의 총체로서 내면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³⁵⁾ 또한 개혁자들은 성경말씀이 인간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식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명료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심을 따라, 각자가 성경의 중심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이해 할 수 있게 된다.³⁶⁾

셋째, “오직 성경만으로”는 성경의 충족성을 의미한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성경과 대등한 새로운 계시나 인간적 전통이 필요 없다는 뜻이다. 개혁자들은 성경의 충족성에 근거하여, 로마교회가 성경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이른바 진리의 “두 가지원천”을 비판하였다. 동시에 토마스 뮌처를 중심한 재세례파의 성경을 벗어난 신비주의적인 새로운 계시의 가능성도 부정하였다.³⁷⁾ 이러한 개혁자들의 성경관에 기초하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은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첨가 되어질 수 없다(제1장 6절)”³⁸⁾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정경인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진리의 유일한 표준임을 말해준다.³⁹⁾

사도적인 개혁자들의 성경관인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세력들을

34)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경기 용인: 킹덤북스, 2015), 13-15.

35)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16-17.

36)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17-18.

37)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18-19.

38) “: unto which(Scripture) nothing at any time is to be added, whether by new revelations of the Spirit, or traditions of me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 Chapter I, vi.

39)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19.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거짓교회와 각종 이단들

(1)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거짓교회

“오직 성경만으로”는 사도들의 성경관ियो,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이다. 특히 칼빈은 성경말씀의 바른 선포를 참교회의 표지로 보았다. 그러함에도 로마교회는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고,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에 첨가시켰다.

로마교회의 트레트공의회는 성경과 함께 전통이 성경을 교리적 진리의 “두 가지 원천”(two-source)으로 대등하게 인정하였다. 트레트공의회 제4기(1546년)에 결정한 “정경적 성경에 관한 교령”(Decree Concerning the Canonical Scriptures)에서,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진리와 규율은 기록된 책들 속에,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정통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어떤 교리가 성경에 없더라도 전통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⁴⁰⁾ 300년 후 제1차 바티칸공의회(1869-1870)도 트레트공의회와 동일하게 성경과 전통을 교리적 진리의 “두 가지 원천”으로 보는 동일한 결정을 반복하였다.⁴¹⁾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성경과 전통에 관한 로마교회의 입장을 이전보다 더 개악(改惡)시켰다. 이제는 성경도 전통도 참된 권위를 상실하고, 오직 로마교회의 가르침의 권위만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헌장> 제2장(하느님 계시의 전달)10항(성전과 성서의 온 교회와 교도직에 대한 관계)에서 분명히 나타난다.⁴²⁾ 결국 로마교회는 초기 공교회 교부들로부터

40)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31-32.

41)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32.

42)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된 교회의 역사적 신앙인 “오직 성경만으로”(Sola Scriptura)의 교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전통만으로”(Sola Traditione)의 자의적 원리를 만들어 완전히 대체해 버린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도 로마교회의 성경과 전통에 관한 견해를 그대로 용납하고 있다. WCC의 핵심기구인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1963년 몬트리올(Montreal)회의에서 로마카톨릭과 동일하게 성경을 교회의 해석에 의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전통의 불완전한 초기단계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부인하였다.⁴³⁾ <신앙과 직제위원회>에 로마카톨릭이 1968년 정회원이 된 후인 1971년 루뱅(Louvain) 회의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더 철저히 불신하는 선언을 하고 있다.⁴⁴⁾

로마교회가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고 성경과 전통을 혼합시켜 사실상 로마교회의 교권에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더니, WCC가 로마교회의 인본주의적 성경관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역사와 문학작품 수준으로 떨어뜨린 촉매역할은 현대 비평적성경관이 자리하고 있다.

(2)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현대 비평적성경관과 각종 이단들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현대 비평적성경관 즉 역사비평과 문학비평이 로마교회와 WCC의 인본주의적 성경관을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역사비평방법의 전제는 단순한 인간의 책으로서의 성경, 역사에 대한 상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헌장, 제2장 하느님 계시의 전달, 10항: 성전과 성서의 온 교회와 교도직에 대한 관계).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36-37.

43)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38.

44) “성경을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있어 우리가 일치해야만 하는 유일한 표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위한 유일한 규범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WCC 「신앙과 직제위원회」 루뱅회의 선언, 1971),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경기 용인: 킹덤북스, 2015), 38-39.

대주의적 이해, 그리고 자율적 인간이성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사실상 로마 교회와 WCC의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바로 이러한 역사비평 방법의 비성경적 선입관들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⁴⁵⁾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인본주의 성경관은 교회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교주신격화를 위한 자의적 성경관에 좋은 먹잇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먼저 현대의 역사적 문학적 성서비평학들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살펴서 분석하여보고, 이러한 인위적 성서해석들을 특히 이단들의 교주 신격화에 활용하고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현대 비평적성경관

건설적인 성경본문비평(textual criticism)은 성경본문의 방언학적 문장적 문제점을 살펴서 그 본문의 원래적 형태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위주로 하는 건설적인 비평학이다. 그러나 현대 고등비평학(higher criticism)은 17세기 화란계 유대인 스피노자(B. D. Spinoza 1632-77)로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 후 1753년 프랑스 의사요 알코올중독자였던 아스튀르(Jean Astruc)의 논문(“Conjectures on the Original Memoranda which Moses seems to have used in composing the Book of Genesis”) 출판으로 문서설이란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른바 문서설은 1866년 그라프(K.H. Graf)의 “J.E.D.P. 순위설”에 이어 1876년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의 이스라엘 종교의 진화설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설의 근거가 확실하지 못한 가설에 불과한 것은 이른바 엘로힘 문서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타나며, 여호와 문서에서도 엘로힘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엘로힘이 접합명사로서 함께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⁴⁶⁾ 이러한 역사적 성경비평학은 근년에 이르러 성서고고학의 발

달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편집비평(Redaction Criticism)은 성경의 저자들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원래의 자료들을 변형시키고(변조), 새로 만들어내었다(위조)고, 가정하고 이러한 것을 추적하려는 연구이다. 편집비평에서는 복음서 저자들이 초 역사(Geschichte)에는 관심이 있었으나, 역사적 사실(Historie)에는 관심이 없었었을 것이라 가정하나,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경험에서 기록한 것임이 소박한 본문의 기술에서 확인된다. 그 한 예가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마28:17)는 사실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편집비평은 성경을 변조나 위조된 문서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성경의 정확성(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한다.

요약하면 성경에 대한 인본주의적 비평방법인 역사비평과 문헌비평은 문서설과 편집비평만 보더라도 그 학문적 접근방법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글로 실추시키는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대로 일점일획도 어김없이 실행되어왔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며, 장차 승천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으신 나사렛 예수로서 심판주로 큰 권능과 영광중에 재림하실 것이다(행1:11).

그러나 학문적 신앙적 허구가 드러난 문서설과 편집비평 등으로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자, 이단들이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②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각종 이단들의 자의적 성경해석들

인본주의적인 성경비평학으로 교회 안팎에서 성경의 권위가 실추된 틈을 이용하여, 이단들은 자신들의 거짓 교리와 악행을 정당화시켜주는 경전이나

45)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경기 용인: 킹덤북스, 2015), 39.

46) 신학사전편집위원회, 『신학사전』(서울: 성광문화사, 1981), 293.

문서를 덧붙이거나⁴⁷⁾, 성경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이단활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선 이단들은 성경 외에 자신들의 경전이나 문서를 덧붙인다. 모르몬교는 『성경』 외에 『모르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라는 경전을 덧붙이고 있다. 통일교도 『원리강론』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성경을 왜곡시킨다. 그 외의 이단들도 각종 비성서적 문서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단성과 비행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이용한다.

그리고 이단들은 성경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여, 자신의 이단성과 악행을 정당화시킨다. 특히 이단의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임의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단의 비성경적 교리와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임의로 해석한다.⁴⁸⁾ 한국교회 주변의 이단들은 자의적인 성경해석을 통하여, 자신들의 교주가 바로 재림 예수나 보혜사임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이단집단에 들어와야 구원받으며, 성경에서 말한 동방이 바로 한국이라는 대동소이한 주장들을 한다.⁴⁹⁾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은 자신을 재림 주, 메시아, 평화의 왕이라고 주장하고, 한반도에 자신이 왕이 되는 지상천국 즉 통일교 왕국을 건설하겠다고 주장하여왔다.⁵⁰⁾ 그러나 그는 지상천국을 건설하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리함에도 교주신격화와 한국 땅에 지상천국 건설을 한다는 거짓선전은 이른바 신천지교회와 하나님의교회도 유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이단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근원적원인은 “오직 성경만으로”의 역사적 신앙교리를 거부한데서 시작된다. 이단들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성경

47) 몰몬교는 『몰몬경』을 더하고, 통일교는 『원리강론』을 더한다.

48) 탁지일, 『이단』(서울: 두란노서원, 2014), 124.

49) 탁지일, 『이단』, 125.

50) 탁지일, 『이단』, 125.

51) 탁지일, 『이단』, 125.

말씀보다 자신들의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데서 거짓된 주장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신천지의 이만희는 『천국비밀계시』 머리말에서 “이 책의 해설과 증거는 모세 때(신29:4)에도, 예수 초림 때(마13:34-35)에도 밝히지 아니한 천국비밀을 오늘날 드러내어 밝힌 것으로서, 기독교 최고의 값진 내용의 책이다”고 적고 있다. 즉 자신의 주장이 불완전한 성서를 완전하게 만드는 마지막 계시라는 주장으로서, 완전한 성경계시가 불완전하다는 주장 자체가 이만희의 주장이 허구임을 폭로하는 것이다.⁵²⁾

이른바 하나님의교회가 발간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에 따르면,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교회를 증명하듯, 오류로 끝난 안식교의 1884년 종말론 주장에 기초해 종말을 주장한다. 즉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 168일 만에 성막을 완성했으므로, 1884년에 168을 더한 2012년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라고 주장하였다.⁵³⁾

이단들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 자체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보는 비성서적인 방법론을 주입시킴으로 신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 실족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교회에 미혹되지 않고 사도적인 성경관 확립과 올바른 성경해석을 위하여 몇 가지 주의가 요망된다.

첫째, 사도들과 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사도들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신약의 렌즈로 구약을 해석하고(마5-7장), 성경전체를 유기적으로 해석하였다. 사도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성경으로 마귀를 물리쳤다(요10:35, 마4:5-11). 개혁자들의 성경해석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구약 전체가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고 조명되어야 한다는 것과, 성경을 진정으로 알려면 성령님의 내적 증

52) 탁지일, 『이단』, 127-128.

53) 탁지일, 『이단』, 128.

거가 필요하다 는 것과, 정경(사도성이 있는)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성경은 원어로 해석되어야 완전하며, 성경해석의 최종권위는 성경이다(불분명한 구절은 분명한 성구에 비추어 해석)는 것과 문리적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둘째, 시대사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그 시대사조에 추종하는 성경해석을 하여 성경을 왜곡시키는 일을 피함과 동시에 이단들과 거짓교회의 이데올로기적 성경해석(비유풀이와 같은)을 경계하고, 성경에 더하거나(외경, 위경, 전통, 인위적인 글들; 통일교의 원리강론, 정명석의 비유론, 신천지의 비유풀이, 몰몬교의 몰몬경 등), 성경에서 제하지(신천지, 하나님의교회 등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과 육체 재림에 관한 성경 말씀 부인과 여호와의 증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지금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딤후 4:1-5).

칼빈이 제시한 참교회의 두 번째 표지인 성례가 주님의 뜻대로 시행되어야 함은 포괄적으로 그리스도관이 바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혁자들의 그리스도관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를 지키는 교회인가?

두 번째 참교회의 표지인, 성례전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리스도관의 문제이다. 성만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⁵⁴⁾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의 그리스도관은 성경에 계시된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Solus Christus)라는 단어로

54) *Institutes*, IV, xvii, 1.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의 개괄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21세기 포스트모던 사조 속에서, 개혁자들의 그리스도관을 거부하는 거짓교회와 이단들의 현상은 어떠한가?

1)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의 개괄적 의미는?

(1)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뜻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은 먼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딤후 3:16) 성경 말씀이 증언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⁵⁵⁾

성경말씀을 따라 고백된 공교회의 신조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고백도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증언한다.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특유하게 나시었고, 즉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지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으로서, 출생하시되 만들어지지는 아니하시었고, 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시다.”(니케아 신조, 325).⁵⁶⁾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됨의 근본적 원천이 되신다. 그러므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재하신 영원한 로고스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하나님인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지, 인간이 신격화된 것이 아니다. 칼빈은 성경에

55)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경기 용인, 킹덤 북스, 2015), 17-18.

56)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18.

의거하여 이미 예수님의 신성이 전제되는 것을 당연한 결론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들어서도 그 신성을 증거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자 하나님이다(빌 2:6-7).⁵⁷⁾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성육신 전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요1:1)은 한 분 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중보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딤후 2:5).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음을 뜻함.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경과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롬 1:17)을 확인하였고, 칼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받는 칭의와 성화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성경적인 산 믿음의 구원론(고전 1:30)을 제시하였다.⁵⁸⁾ 『기독교강요』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대변하는 책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이중은혜론”은 그 핵심 진리라 할 것이다.⁵⁹⁾

칼빈도 루터처럼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 개념의 강한 법적 성격에 인정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얻는 칭의와 함께 성화를 동시에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첫째 은혜는 무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므로 하늘의 심판자 대신에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는 칭의의 은혜이다. 둘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흠 없

57)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18-20.

5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t Basel in 1536, Trans. F. L. Battles(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43.

59)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20-21.

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성화의 은혜이다.⁶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을 통한 ‘이중은혜론’으로 재정립되며, 로마교회의 믿음과 분리된 공로주의적 성화문제에 대한 도전은 단호히 배격된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 구원관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는 본질적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임에도, 거짓교회와 그 아류인 이단들은 이를 거부함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2)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를 거부하는 거짓교회와 이단들

(1)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를 거부하는 거짓교회 세력들

로마교회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며, 성례를 성경 말씀을 따라 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변질시킴으로 거짓 교회라고 개혁자들은 규정하였다. 로마교회는 성경 말씀보다 교권(교황권)을 우위에 두며, 주님의 종에 불과한 교황(Pope)을 그리스도의 지상대리자로 자처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회의 주인으로 받든다. 그리고 로마교회는 마리아를 우상화시켜 오더니, 교황 베네딕토 15세(1914-1922)는 마리아가 공동중보자임을 선언하였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교회헌장(헌법)에 마리아가 공동중보자임을 명문화했다. 즉 “복된 동정녀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Mediatrix 중보자)라는 칭호로 불린다.”⁶¹⁾ 라고 마리아를 중보자에 속함을 교의헌장(교회헌법)에 명문화하였다.

또한 로마교회는 마리아 공동중보자 명문화와 함께, 모든 종교에 중보자와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하였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비 그리

60)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18-20.

61) 제2차 바티칸공의회(Concilium Vaticanum Secundum, 1962-1965)는 <교회헌장> 8장 62항에 마리아가 중보자임을 공식적으로 명문화하였다. “복된 동정녀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Mediatrix 중보자)라는 칭호로 불린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8장 62항

스도교에 관한 선언』(1965)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공식적인 교리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한다는 것은 사탄이 제시한 인본주의(창 3:5)를 받아들이는 것이다.⁶²⁾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밖의 모든 세상의 종교철학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도달하려는 인본주의를 중심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⁶³⁾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초대교회에서부터 21세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적 신앙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를 거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선언하였다. 그 증거로 1990년에 로마교회대표와 그리스정교회대표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교회대표들이 스위스 바아르에 모임을 갖고 발표한 세계교회협의회 ‘바아르 문서’(Baar Statement)는 종교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선언하고 있다. 이 문서의 “기독교론과 종교적 다원성”(Christology And Religious Plurality)에 관한 선언에서는 “구원하는 신비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의 완성을 향해 펼쳐져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재되고 표현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타종교인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구원이) 일어난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⁶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고 공회 앞에서 선언하였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영성과 종교들 안에서”는 활동하지 않으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제3장 1항도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예수

62)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33.

63)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32-33.

64)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34.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지요, 또한 사람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믿는다(엡 2:13-16, 딤후 2:5)”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의 모범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8장 2항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라고 고백함으로⁶⁵⁾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신앙교리가 성경적으로나 교회의 신앙고백과 합치됨을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교회는 16세기에 저지른 복음의 본질적 오류를 21세기에도 그대로 고수하면서 배교적인 악행(계 17-18)을 더 심화시키고 있으며, 세계교회협의회도 개혁자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신앙교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로마교회의 배도행위에 동참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가운 사실이다.

(2)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를 거부하는 각종 이단사상들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사람이심)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자들

a. 가현설(Docetism): 헬라 2원론의 영향을 받은 가현설은 선하신 하나님의 육체와 연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현설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육체는, 단순한 신기루 또는 환영으로서 참된 실체가 아니다. 가현설은 그리스도의 마리아로부터 탄생과 고난과 죽음을 단순한 환상으로 본다.⁶⁶⁾

b. 볼트만(Rudolf Karl Bultmann, 1884-1976): 케리그마(κηρυγμα 선포)의 그리스도와 역사적(歷史的) 예수로 나누어 보고, 사실(fact)과 무관하다고 보는 케리그마의 그리스도는 강조하고, 사실적이라고 보는 역사적 예수는 무시하였다. 볼트만은 복음서를 저자들의 자유로운 창작(역사적 사실성 무시함)으로 간주하고, 복음서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생존과 고난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를 신화로 본다. 가현설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65)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 만으로』, 34-35.

66) 고든 루이스 & 브루스 데머리스트, 『통합신학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664-665.

“사실상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와 인격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나 인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초기 기독교 자료들은,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신화적(神話的)이기 때문이다.”⁶⁷⁾ 그러므로 볼트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육체적 재림을 부인한다.

②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자들

a. **에비온주의(Ebionism)**: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신성은 부인한다. 에비온주의는 예수님이 율법을 엄밀하게 준수하자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령님은 떠났고, 그 결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권위도 상실되었다고 본다.⁶⁸⁾

b. **아리우스(Arius, 250/256-336)**: 아리우스는 말씀 곧 아들이 피조물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스스로 있는 자 또는 영원한 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분아들을 무(無)에서 만들었다. 따라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으며, 아들은 피조물이다. 그가 아버지와 같지도 않고 원래 그가 아버지의 진정한 말씀이나 진정한 지혜가 아니며, 실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그가 다른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씀과 지혜 자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는 다른 것이다.” 위의 글은 알

67) Rudolf Bultmann, *Jesus and the Word*(New York: Scribner, 1962), p.8. 재인용; 고든 루이스 & 브루스 테머리스트, 『통합신학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667.

68) Irenaeus, *Against Heresies*, I,26.1-2;V.1.3; Hippolytus, *Refutation of Heresies*, VII,2.2; Tertullian, *On the Flesh of Christ*, p.14. 고든 루이스 & 브루스 테머리스트, 『통합신학II』, 667-668.

렉산드리아 의 감독 알렉산더가 콘스탄티노플의 알렉산더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에게 아리우스의 교리에 반대하는 편지에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인 아리우스의 교리를 비판하면서 인용한 글이다.⁶⁹⁾

c.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아들은 아버지보다 열등한 신이다. 2)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죽으셨다. 3)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 즉, 영적으로 천사들처럼 재창조된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재림은 볼 수 없게 오신다.

d. **모르몬교(Mormonism)**: 모르몬교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들의 이단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다신론(多神論): 하나님도 인간의 진보로 높아져서 신이 된 분이다. 2) 예수님의 동정녀탄생 부인: 예수는 엘로힘 하나님과 마리아의 성관계로 태어났다. 3)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한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줄 뿐이다. 4) 행위구원: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선행, 세례, 십일조, 성전결혼 및 은밀한 의식 참여로 얻는다. 5) 인간의 신격화: 성전에서 천상결혼을 통하여 자신소유의 유성(planet)을 소유하고, 영적 자녀들을 생산하며, 진보하여 많은 신들이 생겨난다.

③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자들

a. **자유주의신학(liberal theology)**: '아래로 부터'의 기독교론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유능한 인간 도덕교사 정도로 간주했다. 라이마루스(H.S. Raimarus): 예수님의 신성(하나님이심)을 반대하고, 대신 갈리리 출신의 자연종교의 교사로 보았다.

슐라이어마허(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1768-1834): 슐라이어마허는 칸트의 인본주의사상을 신학에 도입하여, 인간을 “주체”로 생각한 최초의 인본주의 신학자이다. 여기서 주체(subjectum)는 모

69)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6%AC%EC%9A%B0%EC%8A%A4>

든 것을 지탱하는 근원을 뜻한다. '주체'로서의 인간은 모든 삶과 사유의 중심이면서, 모든 것은 바로 그 자신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 따라서 주체로서 인간에게 종교란 외부의 어떤 힘에 굴복하거나 순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슬라이어마허의 종교는 교리(계시된 말씀에 따르는)를 중요시하는 정통주의와 결별한다. 슬라이어마허는 그리스도를 독보적인 신의식을 가진 특별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본다.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신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현존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같은 말이다.”⁷⁰⁾ 즉 슬라이어마허가 주장하는 그리스도는 신의식이 뛰어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다.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5):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잘못 믿은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슈바이처의 자유주의신학의 렌즈로 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⁷¹⁾

b.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성경의 시각에서 종교다원주의의 신중심론은 군주신론(Monarchianism)이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성자 하나님; 신성을 부인)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종교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 정도로 본다. 존 힉, 폴 니터, 안병무, 변선환, 김정제, 김용복, 이정배 등이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한다.

④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는자들

네스토리우스(Nestorius, 386?-451):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분리되어야 하고, 이 두 본성에는 각각 다른 속성들이 속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⁷²⁾

70) Friedrich Daniel Ernst Schleiermacher, *The Christian Faith*(Philadelphia: Fortress, reprint 1928), p.327. 재인용; 고든 루이스& 브루스 데머리스트, 『통합신학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671.

71) 고든 루이스& 브루스 데머리스트, 『통합신학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673-674.

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며,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는자들

a.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문선명: “예수님은 지상에 있어서도 원죄(原罪)가 없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그는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인간이었고, 또 부활 후 영계에 있어서도 제자들과 다름없이 영인체로서 계신다.”⁷³⁾ 통일교의 신성(神性)은 성적(性的) 동기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남성으로, 성령을 여성으로 결정하고 예수는 그사이에 태어난 아들, 즉 남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가 남성인 까닭에 예수는 여성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는 남성으로 이 세상에 와서 하와와 사탄의 불륜관계로 깨어진 이성 성상의 원리를 회복해야만 되었으나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사명은 실패로 끝나 버렸다고 한다.

그러므로 탕감복귀의 섭리를 이룰 마지막 재림 예수는 인간 지도자 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재림 예수는 한 남성으로 한국 땅에 태어나 한 여자를 찾아, 하와와 뱀이 만들어낸 사악한 육적관계를 씻어낼 수 있는 사랑(성관계)을 통하여 참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재림 예수는, 초림 때와 같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나라의 왕권을 세우고 만국의 통일을 이루어 세계 인류의 왕이 되며, 영원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고 한다. “우리는 위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영체재림(靈體再臨)이 아니라, 초림 때와 같이 육신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 모로 밝혔다. 예수님이 설혹 영체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체가 물질로 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더욱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다. 더구나 그의 재림이 영체로써가 아니고 육신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일진대, 그 육신으로서 공중의 어디에 가 계시다가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가?”⁷⁴⁾ “자고로 동방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말한다.

72) 고든 루이스& 브루스 데머리스트, 『통합신학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677.

73) 편집부, 『원리강론』(성화사, 1966), 230.

74) 편집부, 『원리강론』(성화사, 1966), 541-542.

그런데 그 중의 일본은 대대로 천조대신(天照大神)을 숭배해 온 나라로서...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인 것이다”⁷⁵⁾

통일교의 이단성을 요약하면, 삼위를 성적으로 왜곡하여, 성부(남성), 성령(여성), 성자(남성)로 이해한다. 예수님은 재림 주를 소개하기 위한 예비자에 불과하다. 남성인 예수는 십자가에 죽음으로 여성들과 사랑에 실패, 죄 없는 아이를 출생시키지 못함으로, 육체적 탕감복귀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부활을 부인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도 부인한다. 예수의 재림 초림 때와 같이 한국에 다시 태어난다(1920년대에). 즉 교주 문선명이 재림예수 라는 것이다. 결국 성경과 사도들과 개혁자들이 증거하여 온 역사적 진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문선명이 대신 차지한 전형적인 이단이다.

통일교의 그리스도관을 간단하게 비판하면, 첫째, 통일교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메시아의 초림은 나사렛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성취되었다(마 2:1~2).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행 1:11, 계 1:7). 둘째, 예수님은 초림 때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사역으로 육체의 구원과 영의 구원을 모두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또 다른 메시아는 결코 필요치 않다(행 4:12). 셋째, 메시아가 육체의 구원을 완성(여성들과 성관계로 탕감복귀)하기 위해 다시금 육체로 태어날 것이라는 통일교의 주장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피조세계의 성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한, 비성경적 견해에 불과하다. 넷째, 통일교 문선명은 최근 이단들의 원류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관계의 영원성을 부정하고 왜곡시킨 후, 재림하실 예

수 그리스도 자리에 문선명 자신을 끼워 넣는 자칭 재림예수(적그리스도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섯째, 자칭 재림 예수를 주장하던 문선명은 지난 2012년 9월 3일(92세)로 감기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 사망함으로, 그의 모든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b.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정명석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영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고 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 승천하시고,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영의 재림으로 바꾸어 해석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궤변이지만, 정명석 자신을 재림 주라고 주장하기 위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 부활로 보고 그 육체의 모습을 본 그대로 온다고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다. -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였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흰 옷입은 두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고 가르쳐 주었다. 영으로 갔으니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미리 말했던 것이다”⁷⁶⁾

영체인 예수님은 땅의 재림주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시는데, 그 육으로 오신 재림주가 바로 정명석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뿐 아니라 실제로 확인해 보아도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림하여도 모른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체이시다. 인간과 같은 육체가 아니다. 고로 인간들이 보고 느끼게 하려면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그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이다. 신약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셨고, 성약 때 예수님은 땅의 재림주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⁷⁷⁾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의 그리스도관을 요약하면, 예수의 부활은 육체

75) 편집부, 『원리강론』(성화사, 1966), 550-551.

76) 정명석, 『구원의 말씀』 I 권(서울: 도서출판 명, 2005), 176.

77) 정명석, 『구원의 말씀』 I 권, 191~192.

의 부활이 아니라 영체의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도 영체의 재림이며, 땅의 재림 주(정명석)의 육신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의 그리스도관을 비판하면, 정명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신성과 인성)과 그 연합의 영원성에 대한 성경적이며 공교회의 역사적 신앙진리인 “칼케돈 신조”(Chalcedon Creed, 451)⁷⁸⁾ 를 모르고 있거나, 혹 알았더라도 자신을 재림 주로 속이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가증한 이단 교주이다.

c. 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 장길자: 세계복음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는 삼위일체교리를 거부하는 이단인 양태론적 군주신론에 속한다.⁷⁹⁾ 이들은 마지막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성경의 증거대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安商洪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시는 어머니 하나님(張吉子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 그리고 정관 1장 4조에는 안상홍이 성령 하나님이며, 예언에 따라 오신 재림 그리스도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지상의 마지막 교회인 이른바 ‘하나님의교회’를 설립한 후(하늘로) 올리운 승천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를 마지막 때인 성령시대로 규정하고, 마지막 때(성부시대, 성자시대를 지나 성령시대 를 의미)에 잃어버렸던 절기를 발견하여 회복하는 사람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곧 육체로 오시는 예수인 안상홍이며, 그가 마지막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주장한다.⁸⁰⁾

78) “우리는 또한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성자, 주님, 독생자의 양성이 혼합, 변질, 분할,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one and the same Christ, Son, Lord, only begotten, to be acknowledged in two natures, inconfusedly, unchangeably, indivisibly, inseparably). <칼케돈 신조> 본문 중에서.

79)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등장하셔야 할 시기와 형태와 그때마다 불리어 질 이름이 다르게 호칭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근본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1인 3역으로 구원사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성삼위일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243-244; 탁지원, 『한국의 자칭 재림 주들』(서울: 현대종교편집국, 2002), 151.

80) 탁지원, 『한국의 자칭 재림 주들』(서울: 현대종교, 2002), 152.

이른바 ‘하나님의교회’의 그리스도론을 요약 비판하면, 이들은 한 분 하나님이 1인 3역으로(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구원사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성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초기교회의 반삼위일체론 이단인 ‘양태론적 군주신론’(Modalistic Monarchianism)에 속하는 이단이다. 그리고 이들은 교주를 신격화하여,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 안상홍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 되는 어머니 하나님(張吉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 집단들 중 하나이다.

d.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 이만희: 신천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만희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가르친다. 이만희라는 사람 자체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다고 주장(양태론적 군주신론 이단에 해당)하면서 이만희를 신격화(동시에 역동적 군주신론 이단에 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국보좌가 오늘날 실상으로 과천에 임하였다고 가르치는데, 그 천국보좌에 이만희가 앉아있다는 것이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고 많은 논란이 계속 돼 왔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가 그것이다. 이미 전술한 대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신이 일체된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지상의 사명자 육체에 임하여 통치하신다. 이때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장막에 거하시는 때이다.”⁸¹⁾

신천지의 그리스도론을 분석비판하면, 첫째로 이들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삼위신이 일체된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신천지는 교리적으로 논할 가치도 없는 삼위일체 개념도 모르는 자들이며, 교리적으로 분석하자면 양태론적이며 역동적인 군주신론 이단에 속한다. 둘째로 신천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와 하나 되신 후에 지상의 사명자 육체에 임하여 통

81) 이만희, 『계시록의 진상』(신천지, 1985), 306.

치하신다.”고 주장하는바, 교주 이만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라는 (역동적 군주신론; 피조물이 신으로 승격)가중한 적그리스도 세력들 중 하나이다.

교주 자신을 자칭 재림예수로 주장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며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목격한 바와 같이 육체를 입으신 그대로 승천하셨으며, 승천하신 그대로 육체로 재림하실 것이다(행1:11).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스스로 일어나 자칭 재림 예수를 주장하는 가중한 자들은 모두 절도며 강도들(요10:8)인 것이다.

III. 맺음말

칼빈은 참된 교회의 지표로서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동시에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베풀어지는데 있다고 하였다.

21세기 포스트모던시대상황에서 참된 교회 표지의 의미는, 개혁자들의 성경관인 “오직 성경만으로” 신앙교리를 지키는 동시에 개혁주의 그리스도관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신앙교리를 지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 교회 주변에는 “오직 성경만으로”를 거부하는 거짓교회와 각종 이단들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를 거부하는 거짓교회와 각종 이단사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면서 교회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양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이미 500여 년 전에 사도적인 신실한 교사요 개혁자인 칼빈

의 “참교회의 표지”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길을 제시해주는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개혁자들의 성경관인 “오직 말씀만으로”의 신앙교리는 거짓교회의 인간적 전통을 내세운 거짓교리를 무너뜨리고, 이단들의 자의적인 성경해석을 통한 교주신격화 시도의 기반을 제거하며, 참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게 한다.

둘째, 개혁자들의 그리스도관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의 신앙교리는 거짓교회의 마리아 공동 중보자교리와 종교다원주의를 허락하지 않고, 각종 이단들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자칭 재림예수론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하여 참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더욱 굳게 서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 하는 데 유익을 준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18:4)

SOLI DEO GLORIA!

참고문헌

- 고든 루이스 & 브루스 데머리스트, 『통합신학 II』.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0.
- 신학사전편집위원회, 『신학사전』. 서울: 성광문화사, 1981.
- 서춘용, 『교회와 이단』. 서울: 크리스찬서적, 2010.
- 유태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경기 용인: 킹덤북스, 2015.
- 이환봉, 『오직 성경만으로』. 경기 용인: 킹덤북스, 2015.
- 탁지원, 『한국의 자칭 재림 주들』. 서울: 현대종교편집국, 2002.
- 탁지일, 『이단』. 서울: 두란노서원, 2014.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at Basel in 1536, Trans. F. L. Battl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2, ed., J. T. McNeill, F.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Conn, Harvie M. *Inerrancy and Hermeneutic*.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0.
-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
-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B%A6%AC%EC%9A%B0%EC%8A%A4>

제네바목사회 회의록을 통해 본 칼뱅의 신학과 목회: 기독교강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임종구(총신대학교, 종교개혁사)

I. 들어가는 말

그 동안 한국에서의 칼뱅연구는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한 교리적 칼뱅에 천착해 있었다. 이런 경향은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일정부분 긍정적 기제(positive mechanism)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단면적 교조성(教條性)으로 인해 신학의 상상력을 위축시켜 분리주의를 촉발하고 플라톤적인 현실부조화(practical dissonance)에 이르게 했다. 이른바 병법(兵法)은 있지만 전사(戰史)는 연구되지 못한 채 신학은 있지만 성찰은 없고, 교리는 있지만 적용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리적 칼뱅연구에서 그 보폭을 근대적 칼뱅연구로 내딛고 장차 자아 성찰적 칼뱅연구로 나아가는 흐름에서 있다. 칼뱅의 신학을 기독교강요라고 한다면 칼뱅의 목회는 제네바교회일 것이다. 우리는 그의 신학을 그의 주저에서 파악한다. 기독교 강요가 당

* 본고는 임종구, “제네바 목사회(1536-1564)에 따른 칼뱅의 활동과 신학에 관한 고찰_Reflections on Calvin's Activities and Theology According to the Company of Pastors in Geneva (1536-1564)”(Ph.D., 총신대학교, 2015). 및 임종구, 『칼빈과 제네바목사회』(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에서 전문요약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